

해양심층수 농산물로 고부가가치 창출

해양심층수 농산물연구모임회 지난 15일 창립총회 ... 회장 김훈희, 발기인 10명 구성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해 채소 생산의 영농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고성군 농업인 교육관에서 해양심층수 농산물연구모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농업인 및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연구회 명칭확정, 정관수립 및 임원선출, 2012 해양심층수 농작물 재배 품종 농가별 선정, 기타 토의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해양심층수 농산물연구모임회로 공식명칭을 정하고, 10명의 발기인을 구성했다.

임원으로는 회장에 김훈희 참

농원 연구소장이, 사무국장 허라경, 감사 황익순씨가 각각 선출됐다.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해양심층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이나 병원균이 거의 없는 해양수산자원으로 일반 표층수에 비해 농산물의 성장속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해양심층수 농산물연구모임회 김훈희 회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는 있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기능성 농산물로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해양심층수 농산물연구모임회를 창립한 만큼 집중 육성해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지난 15일 열린 해양심층수 농산물연구모임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간성읍에 설치된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모습.

거진에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 설치

거진1리~11리 시가지 2,700세대 대상 ... 5월부터 본격 시행

지난해부터 간성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설치사업이 오는 5월부터 거진읍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성군은 간성읍 시내권 9개 마을 58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나선 결과 반응이 좋아, 올해는 거진읍 시내권 12개 마을 2천700세대에 대

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지역인 거진읍 거진 1리~11리 주민을 대상으로 3월중에 시연회와 안내 전단지 배부 등 집중홍보를 한 뒤, 설치를 마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13년에는 면지역에도 확대·운영해 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기는 우선 선불 수수료 칩을 구매해 소지한 상태에서 집안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담은 뒤, 도로변 등에 설치된 고정식 배출용기에 칩을 삽입해 문을 열고 지정선 안까지 넣은 후 배출용 페달을 밟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최광호 기자

거진중·고 총동문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존경하는 거진중·고 동문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진중·고 총동문회 제16대 및 제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 회 장
김 영 문(제16대)



취 임 회 장
박 명 재(제17대)

◇일 시 : 2012년 2월 25일(土), 오후 6시

◇장 소 : 거진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거진중·고 총동문회